

서울, 2.7조 투입 ‘민생 더보탬’… 자금·물가·피해구제 원스톱

안심통장 5000억 확대, 은행도 늘려
희망동행자금 상환 늘려 부담 완화
골목상권 4곳 추가… 시장안전 강화
착한가격업소 2500곳으로 확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만 머무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위기에 먼저 노출되는 4대 계층을 중심으로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자금지원과 물가 안정, 권익 보호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계획을 발표하고, 8대 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체감형 지원 확대

서울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



서울시청 전경.

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 등 6개소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다.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교육과 전환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을 갖춘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3000명을 선제 발굴해 AI 경영진단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폐업 시에는 행정 절차와 전직 교육을 포함해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 전통시장·골목상권 역량 강화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해 총 10개 상권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동작구 노량진만나로, 광진구 건대입구 청춘대로, 강서구 마곡 미술길 이 새로 포함됐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중구 신중암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해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한다.

◆ 취약노동자 안전망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2500개소로 늘리고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품목을 확대해 출하장려금으로 공급을 안정화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청년 금융교육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3월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신설해 상가임대차·선결제 피해 등 생활밀착 이슈에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확대해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제공한다.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은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제조업·야간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은 145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는 예방 중심 안전망을 구축한다. 노동관계법 교육과 컨설팅 대상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한다.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 24시간 상담콜·마음지구대 가동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
3646억 투입해 46개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1천여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6.7%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주거·경제 불안 등 1인가구 관련 정책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 원을 투입해 6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6개



인천시청전경.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됐으며,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중점으로 했다.

특히 2025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거 및 경제 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안정 지원(3,040억 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

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생활 지원 분야(434억 원)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노인 1인가구 일자리 연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책추진 기반 구축 2억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9억 원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 104억 원 ▲사회관계망 강화 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 1인가구 포털 개편,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운영 등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행복동행사업은 2026년 강화군·동구·연수구·부평구·서구 등 5개 군·구로 확대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부산, 설 연휴 민생경제·안전·의료 ‘총력’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와 안전, 보건의료 등 7개 분야를 포함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동백전 소비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500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원을 지급하는 ‘동백전 소비 붐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와 최대 2만원 환급 행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400억원 조기 공급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와 사회공헌기관이 총 32억원 상당의 선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연휴 전후 독거노인 안전 확인, 노숙



부산시청 전경.

인 무료 특식 제공, 야간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운영, 성묘·봉안시설 운영 시간 2시간 연장 등도 시행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 기간 3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시와 보건소,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유치

연 11.8억 투입해 내달 본격 운영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공모사업에서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아우르는 가상융합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 지원 거점기관이다.

연간 국비를 포함해 11억8천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센터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가상융합 서비스·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 및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가상융합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와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5G MEC 실증 인프라, 문경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존에 구축된 지역 가상융합산업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증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AI 가상융합산업 추진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CG, 모션캡처, AI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디지털 휴먼 솔루션 기술을 도입해 가상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을 끌어올린다.

해당 기술은 향후 구축될 AI 영상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창작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도화되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상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 BTS 연계 관광콘텐츠 띄운다

6월 부산 콘서트 방한 해외팬 타깃

포항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BTS 부산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방한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 BTS 공연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해외 팬층을 포항으로 유입시켜,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글로벌 수요에 주목해 2026년 3월부터 6월 21일까지 글로벌 숙박·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나선다. 플랫폼 내 배너 광고를 통해 포항

의 주요 관광지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콘서트 이후 떠나는 포항 여행 등 공연과 연계한 메시지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여행 동선을 포항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BTS 진이 언급한 물회의 도시 이미지를 비롯해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회전목마 카페 등 팬들에게 친숙한 장소를 중심으로 포항의 매력을 적극 부각한다.

시는 글로벌 팬클럽 아미는 물론 K-POP에 관심 있는 해외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포항을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인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